

현장과 시각

오바마 '포용 인사' 한국은 안되나



임동욱

서울취재팀 차장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4일로 대선 승리 한 달을 맞았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한 달 동안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비전을 선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바마 당선인의 포용과 화합의 인선이 자리잡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우선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정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기용했다.

여기에 대표적 '부시 대통령' 인맥인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중립적 색채의 제임스 존스 전 나토사령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여성인 재닛 나폴리타노 에리조나 주지사를, 법무장관에는 흑인인 에릭 홀더 전 법무부 부장관, 상무장관에 히스패닉계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명하는 등 성별, 인종별 다양성을 추구한 점도 눈에 띈다.

링컨식 포용정책을 재연한 오바마 당선인의 인적 인프라 구성은 당장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 경제에 신뢰를 잃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같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포용 인사는 이명박 정부와 여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감남 땅 부자) 인선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또한, 한나라당은 과거 정부에 대해 사실상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각 부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정에 나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고비를 헤쳐며 진전됐던 남북 관계도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미숙한 대응으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강만수 경제팀과 외교 안보리안 등에 대한 강력한 교체 여론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연말연초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기 개각론'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장 박근혜 총리론을 비롯,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통합 내각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 정부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려면 여권 내부 인사는 물론 과거 정권과 진보 성향의 인물들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통과 화합의 내각 인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tuim@kwangju.co.kr



하정웅씨 기증 영친왕 유물.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4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기증한 영친왕 및 이방자 여사 유물. 재일동포 2세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하 명예관장이 이날 기증한 유물은 모두 680여점으로, 영친왕이 일본에 처음왔던 시기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사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당시의 사진 등 다양한 사진 자료와 사진의 유리 원판들이다. (주일 한국문화원 제공)

개성공단 인력 철수 완료

통일부 "북측 허용때 방북 허가"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시체류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력들의 철수가 4일 마무리됐다.

김효련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비상주 체류인원 16명이 철수함으로써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원래는 어제 철수를 다 해야했지만 답소 차량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져 오늘 오후 3시에 복귀하는 것으로 됐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지구는 순조롭게 철수가 진행돼 오늘쯤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오늘 내국인 8명, 중국인 23명이 철수함으로써 100명으로 잔류 인원이 최종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12.1 조치 이후 상주체류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던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 북측이 허용할 방북은 일단 신청한 대로 허가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대아시아인 지난 2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된 상황과 이 과정에서 현대아시아인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사건을 해결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다"며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바마 당선 한달

경제위기 극복 숨가쁜 행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4일로 대선 승리 한달째를 맞는다.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보낸 4주일은 차기 행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경제위기를 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기간이었다. 대체로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오바마 인수위의 정권인수 작업도 '순항'하고 있다.

속전속결 초당적 포용 인선 '합격점'

◇속전속결식 인선 단행=오바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1분도 허비할 틈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팀 인선발표에 신경을 썼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 시카고 인수위 사무실에 나타나 인선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오바마는 티머시 가이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재무장관에,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투통체제'를 구축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연 다섯째 상승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시장의 반응도 좋았다.

외교안보팀 인선은 민주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기용한 것이 백미였다. 링컨식 포용정책을 재연했다는 평가를 받은 오바마의 힐러리 선택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힐러리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실용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선택도 가미된 용인술로 보인다. 다만 스타군단으로 채워진 경제, 외교안보팀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위기 처방전 제시=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을 닮았다면 처방전 역시 '뉴딜 정책'에 비견되는 '뉴 뉴딜 정책'이 오바마노믹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바마가 이런 관점에서 경제회생

의 최대 역점과제로 제시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오바마는 당선후 가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향후 3년 내 2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을 천명했다.

경기부양책은 도로와 교량 재건설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와 연비 개선 자동차 개발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오바마는 지난 1일 외교안보팀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무장관이 다뤄야 할 외교안보 이슈를 나열하면서 '북한과 이란으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첫번째로 거론했다.

이는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파키스탄 테러 문제처럼 다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북핵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간적 품목=오바마는 대선 승리 후 두 차례의 TV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ABC방송의 바버라 월터스와 회견에서 오바마는 세상과 유리되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면모를 보였다. /연합뉴스

"내년 상징색은 노란색" 케컬러, 경제난속 밝은색 유행

내년도는 경제 등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인 만큼 분위기를 밝고 쾌활하게 해 줄 노란색이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디자인계에 표준 색상을 제공하는 팬톤컬러연구소는 내년도의 상징색

을 노란색으로 선정했다며 이 색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팬톤의 집행이사인 리트리체 아이즈맨은 "미모사가 앞으로 매우 상징적인 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온기와 햇볕, 활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가을에 열린 내년 봄 패션 컬렉션에서도 노란 색상은 행사장에 활력을 준 바 있다. /연합뉴스

2009년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12월 1일 첫진도 김명 대학편입학원

(주)옥션코리아 Recruitment Table with columns for Job Type (Government, Private, etc.), Position, Salary, and Location.

2009년에도 동부고시 합격신화는 계속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준비!!! 소방직 5년간 8,359명 채용! 동부고시학원